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The Effects of Family Climate of Fathers' Family of Origin,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on Father-Son Intimacy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 이유리

교수 박성연**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

Graduate Student : Lee, Yu-Ri

Professor : Park, Seong-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climate of fathers' family of origin, fathers' satisfaction with marriage and life, and parenting on father-son intimacy. A total of 297 adolescents ($M=15$ yrs. $SD=1.4$) and their fa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AMOS 7.0. Results indicated that 1) family climate of fathers' family of origin affected father-son intimacy positively through both fathers' high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reby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 2) Family climate of the family of origin affected father-son intimacy negatively through low marital satisfaction and thereby high psychological controlling parenting. These results evinced that family climate of father's family of origin could be the source of father-son intimacy while fathers' marital and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mediate the relationships.

▲주요어(Key Words) : 원가족의 가족분위기(family climate of the family of origin), 부-자간 친밀감(father-son intimacy),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I. 서론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들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모든 생활측면에서 보다 독립적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게 된다. 2006년

한국교육개발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의 약 30.9%는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부모와의 대화단절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 중·고등학교의 40.6%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화일보』 2008, 6월 11일). 이러한 상황은 부모에 대한 청소년기 자녀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어, 역기능적인 가족관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더 불만족하고 있으며(고성애, 1998), 아버지와 원활한 의사소

* 본연구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박성연 (E-mail : psy@ewha.ac.kr)

통을 못하는 청소년들은 아버지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이영숙·김정옥, 2002; 조미숙·오선주, 1999). 또한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높아져 딸보다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희·최명선, 2001; 박영신·김의철, 2004). 이러한 보고들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부모와의 갈등이 청소년의 발달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문제들이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 간 친밀감 부족이나 갈등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또래관계가 생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기에도 부모자녀 관계가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둘 때 여러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이사라·박성연, 2001),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또래의 영향이나 비행 청소년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Collins et al., 2000)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부자관계 친밀성은 그 어느 발달시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자간 친밀성은 정서적인 유대 및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특징지어지며, 부자간 친밀감이나 부자관계의 질은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예를 들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초자아 형성의 기초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게 되어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아들은 내면화된 도덕발달을 보이는 한편(변명숙, 2005),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남학생의 건전한 자아개념과 성역할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국길숙·이미숙, 2003). 반면에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청소년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문제행동이 증가하며(최규련, 1998), 우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임점숙, 2000),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이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부자관계의 질이 청소년 적응에 중요하다면, 부자관계의 질과 관련된 부자간 의사소통이나 정서적 친밀감에서의 차이를 예측해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부자관계의 질 향상이나 청소년 지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관계를 다룬 국내연구들은(강완숙, 2000; 고성애, 1998; 김수진, 2001; 남정홍, 2001; 박옥임, 1997; 임점숙, 2000; 지효숙, 2007) 부자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비행, 우울 또는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버지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그 경로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자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부자관계의 질은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뿐 아니라 아버지의 성격적 특성 및 아들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주된 선행요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Belsky(1984)의 가족과정 모델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들이 자라온 발달적 역사로 형성된 인성적 특성이나 현재의 환경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격이나 맥락적 요인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부자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어렸을 때 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 경험한 가정분위기나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자신이 새로이 형성한 가족(family of procreation)에서 나타내는 양육행동이나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이 조장되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도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반면,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인다(박성연·전현진, 1999).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도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박성연, 2002).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졌던 아버지는 보다 더 애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희주, 1996). 같은 맥락에서, 20여년 이상에 걸친 장기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원가족에서의 지지적인 분위기나 양육경험(또는 양육행동)은 성인초기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를 예측하였다(Belsky et al., 2001). 또한 최근에 보고된 국내연구(김영희 등, 2007)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원가족 정서분위기가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증가된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자신감은 유아기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자녀돌보기, 여가활동 함께하기, 정서적지지, 생활지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 가능성과 함께, 원가족의 분위기나 양육경험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매개로 부모자녀관계나 친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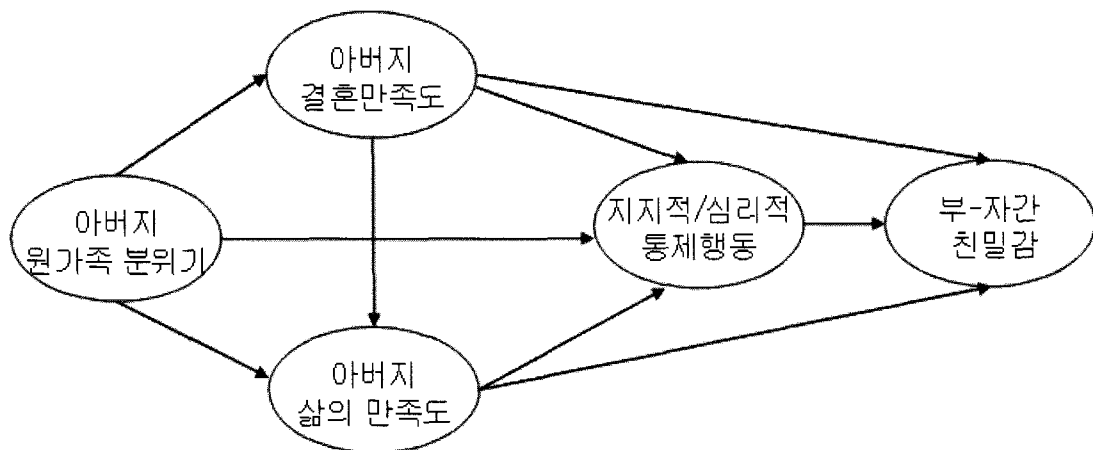
한편, 원가족의 정서적 지지나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등 가족관계 경험은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복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김태희, 1996; 최진숙, 2006; Shaw et al., 200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은 현재 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최진숙, 2006; Canfield, 1983), 원가족 경험이 서로 비슷한 부부의 경우 결혼유지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순기, 2001). 또한 원가족의 건강수준과 현재 자신이 이룬 가정에서의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관련이 있으며(전춘애·박성연, 1994), 원가족 부모의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성인 자녀의 결혼의 질도 높다(김영희, 1999; Couillard, 1990; Glenn & Kramer, 1987; Lewis & Spanier, 1979). 뿐 만 아니라, 원가족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는 양육행동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부모자녀간 친밀감에 미치게 된다. 즉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온정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반면,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거부적·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게 된다(박성연·전현진, 1999). 같은 맥락에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며 자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Belsky & Isabella, 1985). Abidin(1992)의 스트레스 모델에서도 양육자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감이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으면, 합리적 지도나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 지시/통제, 거부/적대적 양육행동을 덜 하고(송신영, 2007), 온정적, 설명적, 자율성 촉진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박서영, 2007)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우울한 정서의 부모들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Belsky & Pensky, 1990)를 통해서도 아버지의 심리적 만족감이 양육행동 및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수준은 부부관계 및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체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경험한 원가족의 분위기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부자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Bowlby(1973)의 애착이론에 근거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유용성(availability)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나 부모에 대한 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부모의 양육행동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양육차원은 다르며(Bornstein, 2002), 특히 청소년시기에는 부모의 지지, 행동적 통제 및 심리적 통제가 중요시되고 있다(Barber et al., 2005). 이 세 가지 양육행동유형 중에서 특히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애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자녀간 친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경험 및 표현을 무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심리적 통제는 인지,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 아동후기나 청소년기의 부자 관계에 갈등적 요인이 된다(Barber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지지행동과 심리적 통제행동을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양육행동으로 가정하고, 아버지의 지지적 행동은 부-자 간 친밀감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심리적인 통제행동은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요약하면 그동안 부자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인 한편, 청소년의 적응이나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부자간 의사소통 정도나 친밀감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부자간 친밀감과 관련된 아버지 관련 심리적 변인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는 부자관계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실증적 연구가 부족했던 부자간 친밀감을 예측하는 선행변인들에 초점을 두었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를 주된 예측변인으로 선정하고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그리고 양육행동이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아버지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양육행동 및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어떠한가? 이며,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지지/온정성)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 양육행동(지지적 행동 및 심리적 통제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인천시에 위치하는 중·고등학교 재학 남학생 297명과 그 아버지들이며, 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5세($SD=1.4$),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6세($SD=3.6$)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부분(96%)이 고등학교졸업 이상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약 33%), 그 다음으로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약 29%,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약 18%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약 37%) 그 다음으로 300만원~400만원 이하가 약 29%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는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아버지 보고용 질문지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부자간 친밀감에 관한 청소년 보고용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1) 원가족 분위기

원가족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Hovestad 등(1985)의 원가족 척도(FOS; Family of Origin Scale)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 제작한 최현미(1997)의 원가족 건강성 척도 중 원가족의 전반적 건강성 요인 16문항에서 가족원의 지지와 온정성에 관련된 4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문항 예: '내가 자란 가정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잘 헤아려주는 때가 많았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이고 온정적인 가족분위기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ach 등(1980)이 개발한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번안하여 간략형으로 수정한 유은희와 박성연(1991)의 척도 17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문항 예: '아내와 나는 행동의 옳고 그른 판단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96으로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avot와 Dinner

(1993)가 제작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SWLS은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문항 예: '내 삶의 대부분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문항내적 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4) 양육행동

아버지 양육행동은 지지적 양육행동과 심리적 통제행동으로 나누어 측정되며, Barber 등(2005)의 청소년 보고용 부모양육행동 척도 중 지지에 관한 9문항과 심리적 통제에 관한 8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지지적 양육행동의 문항 예를 들어보면, '나의 걱정에 대해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이며,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의 문항 예로는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나를 쳐다보려하지 않으신다'를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적, 또는 심리적 통제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지지적 양육행동과 심리적 통제행동 문항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각각 .92와 .82로 나타났다.

5) 부자간 친밀감

본 연구에서 부자간 친밀감은 정서적 친밀감과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정의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Walker와 Thompson(1983)이 개발한 친밀감 척도를 기초로 지지영(2001)이 재구성한 정서적 친밀감 8문항과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 검사(PACI;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Inventory)를 수정 보완한 오미경(1997)의 의사소통 척도 7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친밀감은 좋아함, 존경, 신뢰성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 의지가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개방적 의사소통 문항 예로는 '나는 아버지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친밀감 8문항과 개방적 의사소통 7문항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각각 .96 과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남학생과 그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버지용 설문지(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봉투에 넣어 청소년을

통해 아버지에게 전달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청소년을 통해 수거하였으며 청소년용 질문지(양육행동, 부자간 친밀감)는 담임교사가 편리한 시간에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거는 2008년 9월~10월 중 약 4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질문지 700부 중 428부가 회수되었으나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만을 선정해 총 297부가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으로는 상관관계분석 및 AMOS 7.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이론에 기초하여 설정된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검증은 두 단계를 거쳐(Anderson & Gerbing, 1988)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전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한 모수추정방식은 가장 보편적인 최대우도 추정법을 사용하였으며(이학식·임지훈, 2008),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과 경로분석과정에서는 양육행동의 두 가지 잠재변수(지지적 양육행동과 심리적 통제행동)를 각기 따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원가족 분위기 및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양육행동이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이론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construct들(잠재요인,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양육행동 및 부자간 친밀감)로 구성되는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잠재요인은 임의로 2-4개의 측정변수를 갖도록 parceling 하였다¹⁾. 그 결과 각 construct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표준화계수)은 모두 .55이상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표 1> 참조), 모든 측정변수들은 이론변수인 각 잠재요인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이에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2> 참조), 아버지가 보고한 원가족 분위기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각각 $r=.43$; $r=.32$)

<표 1> 측정변수들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명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원가족 분위기(f)	원가족 분위기1(f1)	.62***	.60	11.37
	원가족 분위기2(f2)	.77***	.74	15.25
	원가족 분위기3(f3)	.92***	.86	18.68
	원가족 분위기4(f4)	1.00	.89	
결혼만족도(m)	결혼만족도1 (m1)	1.00	.95	
	결혼만족도2 (m2)	.98***	.96	38.63
	결혼만족도3 (m3)	.93***	.93	32.83
삶의 만족도(s)	삶의 만족도1 (s1)	.86***	.60	9.56
	삶의 만족도2 (s2)	1.10***	.85	13.01
	삶의 만족도3 (s3)	1.12***	.90	13.46
	삶의 만족도4 (s4)	1.12***	.64	10.18
	삶의 만족도5 (s5)	1.00	.68	
지지적 양육행동(p)	지지적 양육행동1(p1)	1.00	.89	
	지지적 양육행동2(p2)	.93***	.90	23.68
	지지적 양육행동3(p3)	.91***	.86	21.53
심리적 통제행동(p)	심리적 통제행동1(p1)	1.00	.78	
	심리적 통제행동2(p2)	.65***	.55	5.94
부-자간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1.00	.98	
	개방적 의사소통	.90***	.86	15.58

*** $p < .001$

1)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측정모형 분석시 Random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Parceling은 연구결과와 무관하다고 보기(Little et al., 2002) 때문에 각 잠재변수는 임의로 2개 이상의 측정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하며, 표준화계수는 .50이상이어야 하며 .70이상이 바람직하다(이학식·임지훈, 2008).

원가족 분위기가 지지적, 온정적이었다고 지각 할수록 현재 부부관계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보고한 원가족 분위기는 아들이 보고한 아버지의 지지적 행동과는 정적인 관계($r=.20$)를 나타낸 반면, 심리적 통제와는 부적인 관계($r=-.15$)를 나타내어, 아버지가 원가족에서 지지적, 온정적인 가족관계를 경험을 하였을수록 아들에게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덜하였다.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정서적인 친밀감과 정적인 관계($r=.18$)를 보였다.

한편 아버지가 보고한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는 아들이 지각한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행동과는 정적 관계(각각 $r=.30$; $r=.26$)를 나타낸 반면, 심리적 통제행동과는 부적인 관계(각각 $r=-.21$, $r=-.14$)를 나타내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들에게 지지적이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심리적인 통제 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는 부자간 친밀감의 지표가 되는 정서적인 친밀감 및 개방적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어($r_s=.25 \sim .33$), 아버지의 결혼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하였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아들이 지각한 친밀감이나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높은 정적 상관(각각 $r=.87$; $r=.83$)을 나타내었으며, 심리적 통제행동은 부적인 상관(각각 $r=-.49$; $r=-.42$)을 나타내, 아버지가 지지적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부자간 친밀감은 높았으며, 아버지가 심리적 통제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부자간 친밀감은 낮았다. <표 2>에 나타난 상관관계에 기초해 볼 때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나 이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

2.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분석

이론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지지적 양육행동과 심리적 통제행동 모두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두가 좋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양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1)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및 지지적 양육행동이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편 이론적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그림 2>에 실선으로 나타나있듯이,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결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가 지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 그리고 지지적 양육행동이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표 4> 참조). 그러나 원가족 분위기가 지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나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가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요약하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결혼만족도를 통해 지지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지지적 애정적일수록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높았으며 높은 결혼만족도는 청소년 아들에 대한 지지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부자간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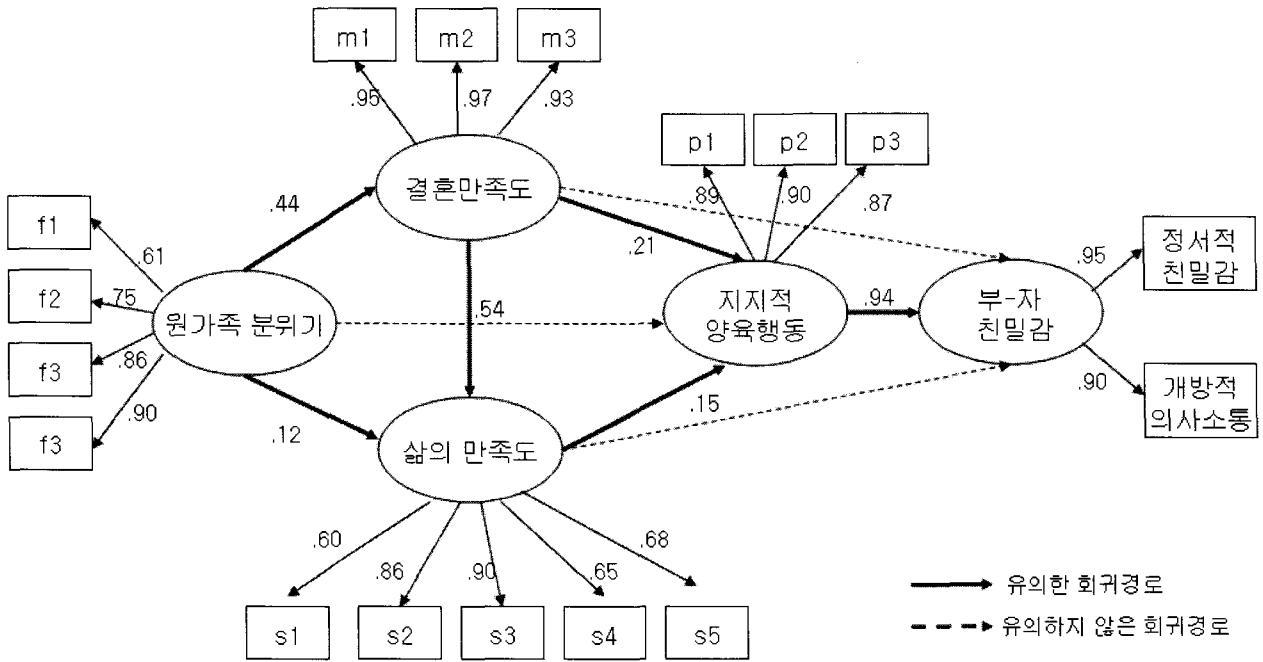
(N=297)

변인	1	2	3	4	5	6	7
1. 원가족 분위기	-						
2. 결혼 만족도	.43***	-					
3. 삶의 만족도	.32***	.52***	-				
4. 지지적 양육행동	.20**	.30***	.26***	-			
5. 심리적 통제행동	-.15*	-.21***	-.14*	-.51***	-		
6. 부-자간 친밀감	.18**	.33***	.28***	.87***	-.49***	-	
7. 개방적 의사소통	.07	.31***	.25***	.83***	-.42***	.85***	-
M	3.60	3.81	3.20	3.36	2.25	3.54	2.99
SD	.76	.71	.70	.90	.76	.91	.94

*p<.05, **p<.01, ***p<.001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GFI	RMSEA	CFI	TLI	NFI
지지적 양육행동	.931	.051	.979	.974	.954
심리적 통제행동	.932	.056	.972	.965	.944
기준값	>0.9	0.05-0.08	>0.9	>0.9	>0.9



<그림 2>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및 지지적 양육행동을 포함한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4> 구조모형 각 경로의 직·간접효과(지지적 양육행동의 경우)

경로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원가족 분위기 → 결혼만족도	.44	-	.44
원가족 분위기 → 삶의 만족도	.12	.24	.36
원가족 분위기 → 지지적 양육행동	-	.15	.15
원가족 분위기 → 부-자 친밀감	-	.21	.21
결혼만족도 → 삶의 만족도	.54	-	.54
결혼만족도 → 지지적 양육행동	.21	-	.21
결혼만족도 → 부-자 친밀감	-	.29	.29
삶의 만족도 → 지지적 양육행동	.15	-	.15
삶의 만족도 → 부-자 친밀감	-	.14	.14
지지적 양육행동 → 부-자 친밀감	.94	-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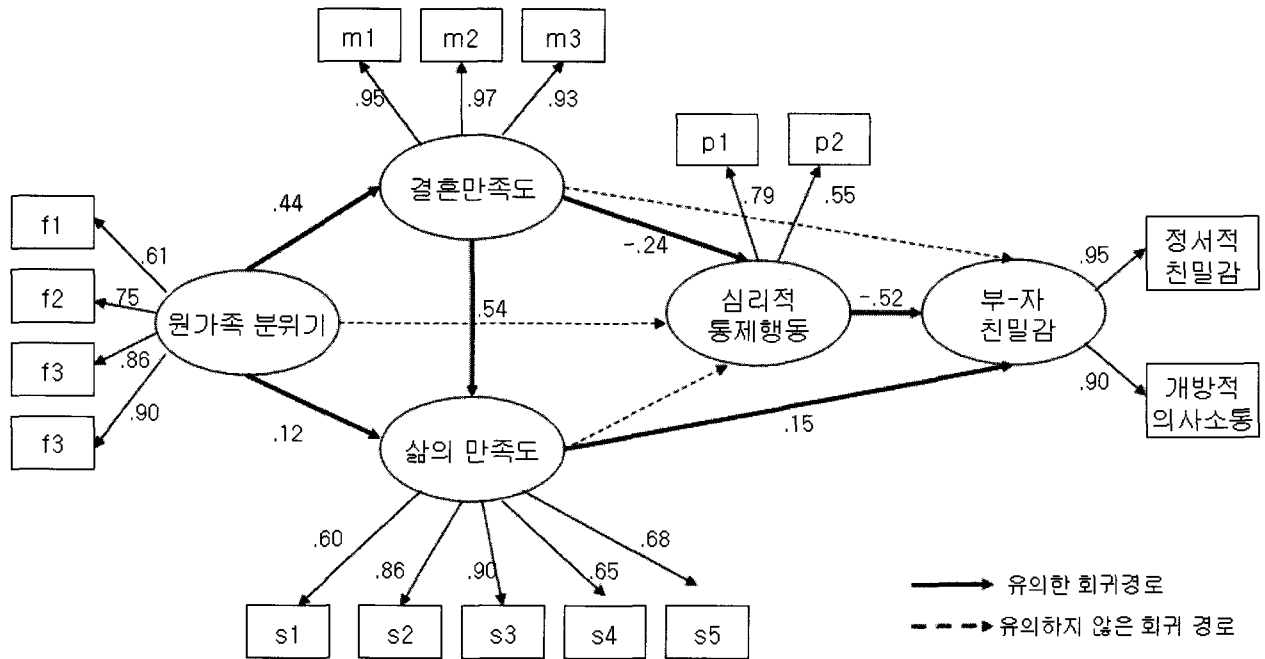
친밀감이 높았다. 또한 원가족 분위기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결혼만족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부자간 친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론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지지적 양육행동)이 내생변수인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통제행동이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림 3>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결혼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경로,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통제행동에

미치는 경로, 그리고 심리적 통제행동이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경로에서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났다(<표 5> 참조). 그러나 원가족 분위기가 심리적 통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나 결혼만족도가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직접경로,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심리적 통제행동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3> 참조).

요약하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결혼만족도를 통해 심리적 통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심리적인 통제행동은 부자간 친밀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지지적 애정적일수록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높았고, 그에 따라 청소년 아들에 대한 심리적 통제행동은 낮았던 반면, 높은 심리적 통제행동은 낮은 부자간 친밀감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원가족 분위기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



<그림 3>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및 심리적 통제행동을 포함한 구조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5> 구조모형 각 경로의 직·간접효과(심리적 통제행동의 경우)

경로	인과적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원가족 분위기 → 결혼만족도	.44	-	.44
원가족 분위기 → 삶의 만족도	.12	.24	.36
원가족 분위기 → 심리적 통제행동	-	.15	.15
원가족 분위기 → 부-자 친밀감	-	.21	.21
결혼만족도 → 삶의 만족도	.54	-	.54
결혼만족도 → 심리적 통제행동	-.24	-	-.24
결혼만족도 → 부-자 친밀감	-	.30	.30
삶의 만족도 → 심리적 통제행동	-	-	-
삶의 만족도 → 부-자 친밀감	.15	.14	.29
심리적 통제행동 → 부-자 친밀감	-.52	-	-.52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접적으로 부자간 친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심리적 통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혼만족도와는 달리, 삶의 만족도는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이론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심리적 통제행동)이 내생변수인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자청소년 297명(평균연령: 15세)과 그 아버지

(평균연령: 46세)를 대상으로 부자간 친밀감 형성에 아버지가 자라난 원가족의 분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가족 분위기가 부자간 친밀감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변인이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와 부-자간 친밀감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아버지의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원가족 분위기는 아버지의 현재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버지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부자간 친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같은 경로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심리적 통제행동은 부자간 친밀감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외에도 원가족 분위기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결혼만족도나 삶의 만족도는 직접적으로도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론적 경로모형의 검증은 위해서는 AMOS 7.0을 이용하여 측정모형 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5개 이론변수(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 양육행동, 부자간 친밀감)를 구성하는 각 측정변수들의 요인적 재치(표준화 계수)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55에서 .98까지 분포되고 있어 각 측정변수들은 이론변수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상관관계는 이론적으로 가정된 방향으로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어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양육행동변수를 지지적 양육행동으로 설정하였을 경우와 심리적 통제행동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2 통계량과 GFI 및 RMSEA, 그리고 증분적합도 지수인 TLI, CFI, NFI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이론모형은 입력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본 연구모형에서 가정된 잠재변인들이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예측된 바와 같이 아버지가 경험한 원가족 분위기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자신의 원가족을 따뜻하게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지지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부자간 친밀감을 높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아버지의 낮은 결혼만족도는 높은 심리적 통제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삶의 만족도 및 지지적 양육행동을 매개로도 부자간 친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 모두가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수준을 높게 지각할 때 결혼적응이 높았다는 Couillard(1990)의 연구결과나 원가족 분위기가 부부친밀감,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국내 선행연구들(박성연·전춘애, 1994; 양진선, 2004; 최진숙, 200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부정적이었던 경우,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자기 부모와의 관계양상을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재현하기 쉽다는 남순현과 한성열(2003)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 결과는 생의 초기에 경험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개인의 심리 사회적 자원을 매개로 성인기의

건강과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Shaw et al., 2004)나 어렸을 적 양육행동이나 가족분위기가 성인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예측한다는 Belsky 등(2001)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한편,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와 삶의 만족도간의 직접적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결혼만족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가 원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높은 결혼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아들에게 지지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애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합리적, 온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보인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김희주, 1996; 박성연·전현진, 1999; Belsky & Isabella, 1985; McHale, 1997)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와는 달리 심리적 통제행동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버지는 심리적인 통제행동을 높게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행동 뿐 아니라 심리적 통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결혼관계 자체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별로 받지 않는 반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결혼관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Brody, Pellegrini, & Sigel)를 지지한다. 따라서 Parke(2002)가 아버지 역할에 대한 고찰에서 지적하였듯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특히 부부관계 만족도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버지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지지적인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원가족의 분위기는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는 두 가지 경로로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쳤다. 한 가지 경로는 삶의 만족도가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는 지지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만족할수록 청소년 아들에게 지지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으면 어머니는 아동을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애정적으로 대하며, 온정적, 설명적, 자율성 촉진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결과(박서영, 2007; 송신영, 2007)와 유사하다. 또 다른 경로는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가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행동을 매개로 하지 않고 부자간 친밀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가 심리적 통제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

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심리적 통제행동을 통해 부-자간 친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삶의 만족도는 직접적으로 부-자간 친밀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삶의 만족도 보다는 결혼만족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상관관계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r = .52, p < .001$)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는 지지적 양육행동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두 가지 측면의 만족감이 서로 다른 경로로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로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삶의 만족감이 지지적 양육행동($r = .26, p < .001$)에 비해 심리적 통제행동과 보다 낮은 단순상관($r = .14, p < .05$)을 나타냈기 때문에 전체 변인들을 고려한 경로모형에서는 둘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대신 직접적으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삶의 만족감과 부-자간 친밀감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

다섯째,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부-자간 친밀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심리적인 통제행동은 부-자간 친밀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지지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들은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친밀하다고 느끼며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한편, 아버지가 심리적인 통제행동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낮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행동은 아버지와 청소년 아들간의 친밀감을 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친밀감에 상당한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이 두 변인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문항내용이 서로 유사한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는 데 기인 할 수도 있다. 또한 양육행동과 친밀감에 관한 척도 모두 청소년 보고에 의한 것이어서 단일 평가자 측정으로 인한 오류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방법이나 평가자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지지적, 통제적 양육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어릴 때 경험한 부모와 관계의 질,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이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abrera et al., 2000; Parke, 1996; Sroufe et al., 1985)와는 다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원가족 분위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행동에 초점이 맞추어 보다는 원가족의 전체적 분위기를 측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가족 분위기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요약하면,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지지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에 정적을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심리적 통제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삶의 만족도를 통해서 심리적 통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삶의 만족도는 직접적으로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아버지의 지지적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행동 모두에 영향을 주어 부-자간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을 매개로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와 청소년 아들간의 친밀감을 예측해주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아버지의 원가족의 정서적 분위기가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는 설정된 모형과 변인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자간 친밀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이나 인과관계는 앞으로 더 정교한 연구설계나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버지 원가족 분위기, 결혼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아버지용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이러한 질문지를 자녀의 학교를 통해 아버지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보고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으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 설문지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아버지의 설문지가 수거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부-자간 친밀감 점수가 낮은 청소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선택적 탈락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부-자간 친밀감이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이 부-자간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부-자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완숙(2000). 지각된 부와 모의 가치, 부/모 자녀간 정서적 친밀도 및 부모의 과잉통제와 대학생 소외감 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애(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국길숙·이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생활과학 연구논집*, 23(1), 89-107.
- 김수진(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1-19.
- 김영희 · 신희정 · 채영문(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영희 · 최명선(2001). 의미 분석법에 의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모이미지 연구. **한국놀이치료연구**, 4(2), 3-14.
- 김태희(1996).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 만족도: 청소년 발달, 중년의 변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주(1996).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순현 · 한성열(2003).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8(2), 33-49.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화일보(2008).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2008. 6. 11. <http://www.munhwa.com/news/view>.
- 박서영(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성연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4), 117-123.
- 박성연 · 전현진(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박영신 · 김의철(2004).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옥임(1997).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교육**, 5(12), 101-113.
- 변명숙(2005). 부모의 성역할 유형과 양육방식이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신영(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 및 양육행동, 아동의 친구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진선(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97).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희 · 박성연(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 이사라 · 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 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영숙 · 김정옥(200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학식 · 임지훈(2008).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 범문사.
- 임점숙 (2000).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자녀의 우울 성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조미숙 · 오선주(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과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67-89.
- 지지영(2001). 초등학교생의 부모-자녀간 정서적 친밀도와 소외감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지효숙(2007).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와의 친밀도 관계 연구. **부산교육학연구**, 20(1), 153-170.
- 최규련 (1998).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120-142.
- 최진숙(2006). 부부갈등과 원가족과의 상관관계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 연구: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idin, 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rber, B. K., & Stolz H. E., & Olsen, J. A.(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Child Development*. 70(4), 1-137.
- Barnes, H., & Olson, D.(1982).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scale. In D. Olson et al.,(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pp.38-48),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Isabella, R. A.(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 Child Development*, 56(2), 342-349.
- Belsky, J. Jaffe, S. Hsieh, K., & Silva, P.(2001). Child-rearing antecedent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young adulthood: A prospective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7, 6, 801-813.
- Belsky, J., & Pensky, E.(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Hinde R. A. & Steven-Hinde, J.(Ed.).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pp.193-217).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Bornstein, M. H.(2002). Parenting infa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Vol. 1, pp.3-44). Mahwah, NJ: Erlbaum.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Y.: Basic Books.
- Brody, G. H., Pellegrini, A. D., & Sigel, I. E. (1986). Marital quality and mother-child and father-child interactions with school-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2, 291-296.
- Cabrera, N. J., Tamis-Lemonda, S., Bradley, R. H., Hofferth, S., & Lamb, M.(2000). Fatherhood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 Development*, 71, 127-136.
- Canfield, B. S.(1983).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selected demographic factors predictor of current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ast Texas State University.
- Collins, W., Maccoby, E., Steinberg, L., Hetherington, E., & Bornstein, M.(2000). Contemporary research on parenting. *American Psychologist*, 55, 2, 218-232.
- Couillard, M.(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 of 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rovo, Utah: Brigham Young University.
- Glenn, N., & Kramer, K.(1987). The marriages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11-825.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A.,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L., & Reiss, I.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Y.: Free Press.
- Little, T. D., & Cunningham, W. A., & Shahar, G., & Widaman, K. F.(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cHale, J. P.(1997). Overt and covert coparenting processes in the family. *Family Process*, 36, 183-201.
- Parke, R. D.(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2002). Fathers and families. In M.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Vol. 3, pp 27-73). Mahwah, NJ: Erlbaum.
- Pavot, R., & Dinner, E.(1993). A Review of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1980).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37-546.
- Shaw, B. A., Krause, N., & Chatters, L. M.(2004). Emotional support from parents early in life, aging, and health. *Psychology and Aging*, 19(1), 4-12.
- Sroufe, L. A., Jacobvitz, D., Mangelsdorf, S., DeAngelo, E., & Ward, M. J.(1985).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A relationship system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6, 316-325.
- Walker, A. J. & Thompson, L.(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83(45), 841-900.

접수일 : 2009년 05월 15일

심사일 : 2009년 05월 2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7월 27일